

외국서 사온 명품, 국내서 팔면?



오성환 변호사의
기특한 칼럼

최근 직구가 유행하면서 해외에서 직접 유망 브랜드 제품이나 명품을 사서 국내에 파는 사례도 늘고 있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문 요청도 많이 들어온다. 질문의 요지는 보통 '상표권자나 제조회사의 허락 없이 외국 브랜드 제품을 직접 수입해 국내에 팔 경우, 상표권 등이 문제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우선, 외국 브랜드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행위를 소위 '진정상품병행수입'이라 한다. 법률적으로 '진정상품'이란 적법한 상표권자에 의해 상표가 부착돼 판매된 상품을 의미하고, '병행수입'이란 제3자가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 해외의 진정상품을 국내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국내의 상표권자가 동일한 경우 진정상품 병행수입을 허용한다. 대부분의 유명 브랜드 제품은 국내의 상표권자가 같으므로, 국제적 소진이론에 따

라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허용되고 있다.

단, 국내의 상표권자가 다르고 국내의 특정 업자에게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특정상품의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 설정돼 있는 경우,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에서 상표권을 직접 생산해 판매한다면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즉, 해외 상표권자가 제조한 상품과 국내의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한 상품이 다를 때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 의류 브랜드 제품은 외국에서 파는 제품과 국내에서 파는 제품의 사이즈나 디자인 등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국내의 제조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상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병행수입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병행수입자가 적극적인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해 광고나 선전 행위를 하고 있다면 소비자로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를 외국 본사의 국내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병행수입업자가 상표를 매장의 외부 간판 및 명함 등에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단, 상표를 매장 내부 간판, 포장지, 쇼핑백 등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병행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범위 내의 사용은 허용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서 고객에게 상표권자의 공인된 국내 매장으로 보이게 만들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만약 국내에서 애플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매장이 애플 본사와 아무런 관련 없이 다면, 고객들은 이 매장이 애플에서 지정한 정식 매장이라고 착각하고 향후 A/S 등 여러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행위는 금지하는 것이다.

위의 사례들은 일반적인 예시들로, 각 케이스별로 고려해야 할 점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해외 브랜드에 대한 병행수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바른



한전, 전기공학 장학생 109명에 9억 장학금 한국전력은 전기공학 전공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74개 대학교 및 10개 대학원 학생 109명에게 올해 총 9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은 에너지 신산업의 주역인 전기공학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699명에게 45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난달 27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장학증서 수여 및 멘토링 체결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



손태승 우리은행장, 직원들과 공감 동행 우리은행은 1일 손태승 은행장(첫번째 줄 가운데)을 비롯한 전 임원과 영업현장 직원 등 150여 명이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구도장원길을 걸으며 '공감동행'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도장원길은 울곡 이이 선생이 아홉 번이나 장원급제하며 걸었던 길로, 어떠한 시험이든 합격할 수 있는 기운이 있다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날 '공감동행' 행사는 손 행장이 취임시 강조했던 소통과 화합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손 행장과 직원들은 구도장원길을 걸으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은행



NH농협생명, 대학생 공모전 시상식 개최 NH농협생명은 지난 2월 28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5회 NH농협생명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월 1일 밝혔다. '인슈테크를 활용한 NH농협생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국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참여하여 보험상품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이 제시됐다. 이날 대상에는 전남대학교 정혜원, 이정석, 우민아 최원 학생 팀이 수상했다. 이들은 농촌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예비 귀농인 대상 귀농지원보험 등을 제안해 장학금 500만원과 농협금융지주회상장의 영예를 안았다. /NH농협생명

피부 노화와 유형별 주름성형



홍중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젊고 아름다운 외모를 평생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인류의 꿈이다.

100세 시대를 맞아 소득의 상당부분을 외모나 건강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일명 '포미족(For Me)'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 포미족은 나를 위한 소비, 즉 자신이 가치를 두는 제품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을 뜻한다.

더욱 눈여겨 볼 만한 것은 과거 젊은 여성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성형수술이 최근 들어 남성은 물론 중장년층 및 노년층 사이에서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차이점은 입체윤곽이나 또렷한 이목구비를 선호하는 젊은층과 달리 주름과 탄력을 동시에 해결해줄 수 있는 '안면

거상술(페이스리프트)'과 같은 주름성형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는 점이다.

일명 '회춘성형'이라고도 불리는 안면 거상술은 얼굴 곳곳에 자리 잡은 표정주름과 아래로 처진 피부탄력을 동시에 끌어 올려주는 수술요법으로 수술 후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 시술의 가장 큰 장점은 리프팅과 주름개선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피부를 바리한 상태에서 눈가주름의 원인이 되는 안륜근이나 미간 주름의 원인이 되는 추미근을 제거해주는 영구적으로 주름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안면거상술의 성공여부는 스마스층 피판을 얼마나 고르게 바리해 당겨주느냐에 달려있는데, 사실 스마스층 바로 밑에는 안면신경이 자리하고 있어 안면신경을 손상시키지 않고 스마스층만 바리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건드릴

경우 안면신경장애가 올 위험이 높고 피부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덩플현상을 유발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성공적인 예후를 기대한다면 처음부터 주름성형 전문병원에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에게 수술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때 주름이나 피부 처짐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미안면거상술'을 시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미안면거상술은 절개선을 최소화해 흉터를 잘 안보이게 하고, 회복기간도 절반으로 줄여 바쁜 직장인이나 외모변화에 민감한 정치인, 방송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방법이다. 단, 사람마다 피부탄력이나 노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인에 맞는 수술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민성형외과 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인사

- ◆방위사업청 △ 유도무기사업부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송창준
- ◆대한상공회의소 △ 승진 △ 경영기획본부장(전무이사) 박종갑 △ 국제본부장(전무이사) 강호민 △ 기업환경조사본부장(상무이사) 박재근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 바이오마이크로시스템연구단장 조일주 △ 바이오닉스연구단장 윤인찬 △ 생체재료연구단장 김유찬 △ 물자원순환연구단장 홍석원 △ 에너지저장연구단장 정경윤 △ 스핀융합연구단장 김형준 △ 의료로봇연구단장 강성철 △ 전통문화과학기술연구단장 도정만 △ 센서시스템연구센터장 김재현 △ 광전자하이브리드연구센터장 정중현 △ 국제협력실장 문영호 △ 글로벌협력팀장 이상규 △ 사체대반도체연구소 운영기획팀장 이바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임용 △ 국제인력본부장 이연복 △ NCS센터 원장 박계영 △ 대전지역본부장 이병재 △ 조직문화혁신TF팀장 손종배 △ 중부지역

- 본부 외국인고용지원팀장 윤아선
- ◆배재대 △ 대덕밸리캠퍼스장 겸 IPP사업단장 겸 공용장비센터장 이상수 △ 아젠달대 대학 부학장 전은미 △ 중앙도서관 주기호 △ 학생상담센터장 김현정 △ 기업지원센터장 박재수 △ 기업지원센터 부센터장 신영진 △ 공용장비센터 부센터장 오성 △ 배재미디어센터장 박윤기 △ 사회과학연구소장 임광혁 △ 비교법연구소장 김동건
- ◆한남대 △ 산학협력부총장 정영태
- ◆한경미디어그룹 △ 한경닷컴 △ 뉴스국 부동산팀장 김하나

부음

- ▲김백선씨 별세, 하응백(문학평론가·휴먼앤북스 대표)씨 모친상 = 2월28일 오후 8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3월 오전 9시. 02-2072-2018.
- ▲이귀관 씨 별세, 신일연(의성마을생산자연화회 회장)·무연(사업)씨 모친상, 김병태(대구신문 의사·

- 군위담당 부국장)씨 병모상 = 1일 오전, 의성중부농협장례예식장, 발인 3일 오전 9시. 054-832-2704.
- ▲주광씨 별세, 주동원(파운트시 대표)·동희씨 부친상 = 28일 오후,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7호, 발인 3월 오전. 02-2227-7569.
- ▲오창섭 씨 별세, 오정남(MBC경남 사업본부 광고부장)씨 부친상 = 1일, 창원 경상대병원 장례식장 VI P2호실, 발인 3일 오전. 055-214-1900.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1721-9800, FAX: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3
독자센터 021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0206



DGB금융그룹, 2018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DGB금융그룹은 지난달 28일 DGB대구은행 제2본점 대강당에서 그룹 산하 3개의 대학생 활동 단체의 2018년 활동을 시작하는 발대식 행사를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DGB금융그룹 산하 DGB대구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DGB대학생 녹색기자단, With-U(위드유) 대학생 봉사단 3개 단체의 126명 대학생들이 함께한 첫 행사다. 이날 박인규 DGB금융그룹 회장(앞줄 가운데)과 그룹 산하 3개의 대학생 활동 단체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GB금융그룹